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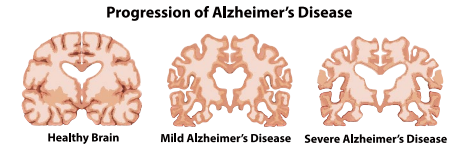
치매, 환자의 인간성은 잃게 하지만 바라보는 이들이여, 인간성을 지켜내도록 하자.

이유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무서워하며 피하려고 한다. 정신병동, 정신과 치료, 정신 분열, 뇌전증 이라고 하면 누구나 쉬쉬하며 숨기려고 한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뇌질환을 앓게 되면 태도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한다. 뇌질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풀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수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다. 최근 전주에서는 치매를 앓던 부인을 간병으로 힘들어 하던 남편이 살해하고, 치매에 걸린 남편이 오히려 간병했던 부인을 살해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치매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혼합형 치매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아밀로이드판은 아밀로이드 단백질, 신경섬유 소체는 타우 단백질에 엉겨 붙고 그로 인해 시냅스가 손상되고 신경 세포는 점점 죽게 되어 나타나는 병이 알츠하이머이다. 나이가 들어 혈관이 좁아지고 경직되면서 지질침착물이 혈관벽에 쌓여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뇌가 손상되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 루이소체 치매는 화학적 신경 전달을 루이소체가 방해하여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여 알츠하이머병 증상과 파킨슨 병 증세를 동시에 보인다.

치매의 증세로는 기억력 저하와 사물의 인식 불가, 기본 생활의 활동이 불가능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치매환자들의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주변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거짓말이 많아지는 행동심리도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심지어 현재까지는 치매를 완치하거나 예방하는 약은 개발되지 않아서 증세나 증상을 완화하는 약과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치매환자들은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몫으로 남겨져 사회 범죄와 무관심 속에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치매는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이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찾아 올 수 있는 병이며 나에게, 나의 부모님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 올 수 있는 질병이기에 많은 관심과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개선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치매환자의 보호자들도 치매 환자가 하는 이상한 행동의 배경에 육체적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환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대처법을 익혀 환자를 참을성 있게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은 어떨까.*

*참고자료 · 1.4킬로그램의 우주, 뇌(정용, 정재승, 김대수 / 사이언스북스 / 2014)

· 하리하라의 몸 이야기(이은희/해나무 / 2010)

· 정신병동 이야기(대릴 커닝엄 저; 권예리 역/이숲 / 2013)